

자치도,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력 강화

행정부지사, “유관기관 상호 공조로 산불 대형화 막자” 4월 15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 대책기간 운영 계획

전북특별자치도는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13일 도청에서 '2024년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는 산림청 관계기관을 비롯해, 소방본부, 군항공대, 전북경찰청, 전주상지청, 한국전력, 국립공원, 전북지방우정청, 산림조합, 14개 시·군 등 32개 관계 책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올 해 산불방지를 위한 기관별 추진대책을 발표하고 산불예방과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위한 기관별 주요 임무와 역할 분담, 범도민적 홍보활동 및 순찰강화, 산불의 조기발견 및 초동진화 태세 확립,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산불현장통합지휘체계 구축 등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회의에 참석해 봄철 산불발생위험이 가장 높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동시다발로 발생하는 대형산불에 대비한 준비상황

점검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유관기관이 상호 공조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1~2월에는 전국적으로 강우량이 많아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3월에는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 매우 건조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산불관리에 특별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봄철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3월과清明·한식·식목일이 있는 4월까지 이어져 있어 산불이 발생할 경우 대형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오는 15일부터 4월 15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2024년 '산불방지 중점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예방·감시활동 강화와 조기발견, 초동진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여 대응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는 산불 진화용 임차헬기 3대(남원, 진안, 고창)를 배치해 산불예방 공중 계도방



전북특별자치도는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13일 도청에서 '2024년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갖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송 및 산불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불진화를 위해 산림청 항공관리소(진화헬기 8대, 해외임차 2)와 협력해 초동진화 체계를 갖추고 빈틈없는 산불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시·군별에서는 기계화산불진화대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1,418명을 산불취약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산불예방·감시와 산불발생 시 즉각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산불 대응태세에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3·4월에는 전국적으로 대형산불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유관기관의 상호 공조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불예방 활동과 대응체계구축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장애가정청소년 홀로서기' 지원

전북자치도, 성장 멘토링 등 다양한 사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스스로 꿈을 꾸고 이뤄가기 어려운 장애가정 청소년의 홀로서기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가정아동 성장멘토링 등 장애인가족지원, 전문가와 지역사회 지원, 두드림 사업이 있다.

장애가정아동 성장멘토링 사업은 저소득 장애부모를 둔 비장애아동(7~14세)과 대학생을 1:1로 매칭, 일상생활관리, 학습 및 학교생활지원, 문화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멘토로 활동한 대학생에게는 멘토활동비, 우수멘토 지원금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 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에 장애인권교육과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신체적·경제적 여건으로 문화적 접근이 쉽지 않은 장애인에게 문화생활공간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는 문화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전문가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장애인복지 세미나를 개최하는 재할신포럼, 도내 초·중·고 비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갖도록 유도하는 장애체험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해 사회의 장애인 문제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꿈지원을 통해 홀로서기를 지원하는 '두드림' 사업은 중위소득 70% 이내의 가정으로 본인 또는 가정 내 장애를 가진 구성원이 있는 청소년에 연 2회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학업 및 진로컨설팅과 대입컨설팅, 자소서 스크린 등 장기간 맞춤형 성장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KB국민은행, 현대홈쇼핑, LG U+ 임직원들과의 멘토링을 통하여 학업을 위한 교육비와 예체능 육성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1:1 만남, 문화·진로체험 등 장애가정 청소년에 정서적 지지와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장애가정 청소년의 가치 있는 미래를 바라보고 홀로서기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가정 청소년 홀로서기 지원 사업내용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전북장애인재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이나 후원 등 문의사항은 유선(063-243-6478)을 통하여 제공 받을 수 있다.

양수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전북 도내 장애인과 그 가족이 주저없이 도움을 신청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5월 31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 지도·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실뱀장어 자원보호를 위해 5월 31일까지 불법조업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

매년 2~6월 경에 서해안 지역의 강·포구로 회유하는 실뱀장어는 3월 중순 경부터 금강하구, 곰소만 등 허가받은 구역에서 본격적으로 조업이 시작되는데, 가격이 높아 불법조업이 이뤄지고 있다.

뱀장어는 우리나라에서 성장해 약 3,000km 떨어진 태평양의 수심 300m 내외의 깊은 바다로 이동 산란하며, 봄철 강이나 하천으로 올라오는 생태적 특성이 있는데, 이 때 인공 종자 생산이 어려운 실뱀장어를 포획해 양식한다.

양식장에서 키운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특정 구역에서만 어획 활동을 하도록 돼 있다. 실뱀장어 불법조업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항로 및 항제 내에 무분별하게 어구를 설치함으로써, 항행 선박들의 안전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김종훈 경제부지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와이케이 방문... 수출 초보기업 지원 등 애로 청취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13일 선도기업인 (유)와이케이(대표 성훈)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장을 둘러보는 등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선도기업은 전북자치도 성장사다리 중심축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술개발(R&D), 공정개선,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의 내용을 지원하고 있다.

(유)와이케이는 자동차 플라스틱 제품 및 농업용 육묘상자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2019년 11월에 설립 후 4년 만인 2023년 5월에 선도기업으로 선정됐다. 간담회에서는 생산품 적재 시 비가림 시설 지원, 수출 초보기업 지원 등 애로사항이 건의됐고, 전북자치도 환경개선사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수출 초보기업 지원사업 등을 검토해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다.

김 부지사는 선도기업의 애로사항을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13일 선도기업인 (유)와이케이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장을 둘러보는 등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

세심하게 듣고, 지원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향후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다.

이어, "도는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기업민원 신속처리단, 환경단속 사전 예고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정책을 강화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개인 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새만금 수질개선 정부 평가 적극 대응

자치도, 시군 및 전문가 전담팀 20명 구성 월1회 상시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대학교수 등 수질관련 전문가, 시군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수질개선 단기대책 종합평가' 대응을 위한 전담팀(T/F) 발족회의를 가졌다.

환경부는 그동안 추진된 '새만금유역 제3단계(2021년~2030년) 수질 개선 대책' 중 지난해까지 완료된 단기대책에 대한 종합평가(이하 단기대책 종합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목표 달성 여부, 대책 성과 등을 종합평가해 목표수질 조정 검토 및 추가대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문가 및 시군과 함께 전담팀(T/F) 구성 운영을 통해 정부의 단기대책 종합평가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및 시군에서는 정부의 단기대

책 종합평가 계획 등을 공유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정책방향에 맞는 수질개선대책을 추가 발굴하는 등 평가에 적극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시군에선 추가 대책을 오는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발굴하고, 전문가들은 제안된 대책에 대해 검토논의 후 정부를 설득할 논리개발 및 대책의 우선순위 등을 설정할 계획이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수질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며 "시군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수질개선사업 추가 발굴 및 대응논리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유역 3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은 44개대책, 144개 세부사업에 1조6,875억원을 들여 새만금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중에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